

지역 소식통

부안군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하세요'

부안군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3호의 가격에 대하여 8월9일부터 8월 2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7월 17일 123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대상은 미공시 개별주택 8호를 제외한 123호이며,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격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5일까지 개별통지하며, 최종 개별주택 가격은 9월 26일 공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고창군은 이번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2만9000여건(6억 6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의 경우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2000원이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등분)가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어 두가지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며, 신고·납부일은 8월 31일까지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서 '미니 세계잼버리' 개최

전북에 남은 8개국 대원 3500여명 대상, 영외과정활동장 활용한 잼버리 활동 이어가

부안군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태풍 북상 등 기상여건 악화로 전국 8개 시도로 철수한 가운데 전북에 남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9일 미니잼버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니잼버리는 방글라데시와 아일랜드, 인도, 포르투갈, 폴란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이집트 등 8개국에서 356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했다.

미니잼버리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3개조로 나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안영상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고사포해수욕장 숲 밧줄놀이체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및 새만금홍보관 견학, 직소천 및 부안댐 견학 등으로 진행했다.

군은 안전한 미니잼버리 개최를 위해 영외과정활동장에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그늘막텐트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의 무더위를 식혀줄 얼음물 약 1만여개를 배부했다.



부안군은 기상여건 악화로 전국 8개 시도로 철수한 가운데 전북에 남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9일 미니잼버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군 하서면 하서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미니잼버리 영외과정활동장을 찾아 치하고 그늘막텐트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의 무더위를 식혀줄 얼음물 약 1만여개를 배부했다.

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고사포해수욕장 숲 밧줄놀이는 상쾌하고 시원해서 너무 좋았다"며 "이번 세계잼버리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꼭 다시 한번 전북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태풍 '카눈' 대비 대책 마련 나서

긴급대책회의·현장점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읍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8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형우 부시장 주재로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협업부서와 읍·면·동의 선제적 상황관리, 재해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을 위해 마련됐다. 또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내 주요 사업장과 방재시설물, 지하차도 등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김형우 부시장은 "최근 긴 장마로 많은 비가 온 가운데, 태풍까지 겹쳐 재해위험이 크다"며 "재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서, '카눈' 피해 예방 회의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9일 태풍 '카눈' 북상 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창경찰은 지난 집중호우에 침수된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 도로와 저지대, 붕괴, 산사태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

을 강화하고 태풍 피해 관련 112신고가 들어오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인명구조와 피해 예방 활동에 총력 대응하며 피해 상황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유기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어서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

기 전 경찰 장비와 순찰차 등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막고 경찰관서 시설물과 통신장비를 점검해 재난 상황과 대응 지시등이 원활하게 전달되게 할 계획이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태풍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동시에 고창경찰도 함께 보호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무료 노인의치 사업 대상자 모집

시술 완료 후 5년간 의치 수리 등 사후관리 본인부담금도 지원

정읍시보건소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 의치(틀니)를 보급해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구강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

보건실에서 구강검진을 통해 틀니 가능 여부를 판별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 내 32개 치과 의원 중에서 무료로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완료 후 5년간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틀니 수리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결손으로 인해 저작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워 치아 관리는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에 힘쓰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식품소스생산지원센터 HACCP 재인증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잼류·소스류 2개 유형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 농식품소스생산지원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부터 잼류, 소스류 등 2개 유형에 대해 HACCP 재인증을 받았다.

HACCP은 가공사업장의 원료의 입고, 제조, 가공 및 유통 등 판매되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해 위해요소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안전한 사업장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재인증 받은 품목을 포함하여 잼류, 소스류, 캔디류(젤리), 식초류 등 4개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2020년 9월 3일 HACCP인증을 받았다. 농축기, 배합탱크, 잼조진기, 5열스티크포장기 등

15종의 설비를 갖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복분자 등 고창의 농산물을 소재한 잼, 소스, 젤리 스틱, 식초 등의 생산 의뢰를 받아 지속적으로 생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고창군의 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있어 HACCP인증 시설이 필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인, 예비 청년 창업자 등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관계자는 "더욱 많은 농업인,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찾아와 위탁 생산하여 소득 창출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 사업과 중앙부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긴급 병해충방제비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농공·가루쌀 재배농가 대상

정읍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공, 가루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방제 지원 대상은 농공과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휴경, 대파 등을 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해 수확할 수 있는 농가다.

사업 계획 면적은 1300ha(논공 1150ha, 가루쌀 150ha)으로 사업비는 1억5600만원(보조50%, 자부담50%)이다. 사업내용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과 작물 생육회복을 위한 영양제로 지역 내 지역농협과 농약사를 통해 농

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논공은 침수 피해로 인해 일과 뿌리 등에 큰 피해를 입어 많은 공이 고사했다. 살아 있는 공도 생장이 더딘 상황에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역병 등에 의한 2차 병해충 피해를 입고 있고, 가루쌀은 이앙 직후 집중호우로 모가 어린 시기에 1~2일 동안 침관수돼 큰 피해를 입어 생장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수가 고사해 다시 심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